

“주민과 함께 생활밀착형 변화 만들기 위해 노력”

민선 6기 증평군정 3주년… 전 분야 성과 축적 행복돌봄나눔터·도안2테크노밸리 분양 완료 등

이재영 군수가 이끄는 민선 6기 증평군정이 3주년을 맞이했다.

‘국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출발한 민선 6기 군정은 복지, 행정, 산업, 문화,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왔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단연 ‘함께하는 행복돌봄’이다.

전국 최초로 군 청사 내 유희공간을 활용해 마련한 ‘행복돌봄나눔터’는 상표권 등록까지 마치며 증평의 고유 돌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야간·주말 긴급돌봄, AI 돌봄로봇 및 비대면 상담서비스 도입 등 스마트 돌

봄 환경을 구축하고, 아이돌보미 인력을 2022년 10명에서 2024년 42명으로 320% 확대해 대기 없는 돌봄 서비스를 실현했다.

이러한 노력은 충북 평균 0.88을 웃도는 합계출산율 1.05로 이어지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증평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노인복지도 한발 앞서 나갔다.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을 바탕으로 의료, 요양, 여가를 결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마을 중심 온마을 돌봄센터와 ‘통합돌봄스테이션’ 운영, AI 스피커 활용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 건

강보조키트 제공 등 디지털 기반 복지도 함께 확산 중이다.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도 눈에 띈다.

대표 플랫폼인 ‘소통공감 행복밴드’를 통해 1400건 이상의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했고, 법인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여권 배송서비스, 공공시설 야간·주말 운영 등 주민 실생활 중심의 세심한 행정이 호평을 받았다.

지역경제 기반 조성도 눈에 띄는 성과다.

도안2테크노밸리는 2024년 5월 준공 후 100% 분양을 완료했으며, 증평 3·4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연이어 추진돼 산업생태계를 확장 중이다.

여기에 더해, 증평을 사곡리 일원에는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설 예정으

로 미래형 기업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년 25개 기업으로부터 총 1조 2880억 원의 투자유치와 1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농촌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 첨단 농기계 실증사업으로 미래형 농업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 일손터하기’ 정책은 농촌인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산물 가공센터·종합유통센터 조성 등과 함께, 도안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농촌체험문화단지는 청년 창업과 마을 활력의 거점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 인프라도 눈에 띄게 확대

됐다.

2024년 준공된 증평종합운동장을 비롯해 파크골프장과 생활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스포츠테마파크와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본격 추진되며 지역 여가 인프라가 한층 풍성해졌다.

이외 인삼골목제의 전국적 인지도 상승, 메리놀병원 시약소 충북도 등록 문화재 지정 등 지역 문화의 깊이도 더해졌다.

이재영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한 걸음씩 성실하게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더 큰 증평, 100년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군정 혁신과 실천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평/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동정



이재영 증평군수는 25일 오전 11시에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열리는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5일 오후 6시 30분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월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25일 오전 11시 괴산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및 괴산군민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5일 오전 11시 음성체육관서 열리는 제75주년 6.25 기념식 참석한다.

음성군, 대소 공영주차장 ‘착공’

주차타워 조성·연말 준공

만성적 주차난 해소 기대

음성군은 대소면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상업지역 및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대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착공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0억 원의 사업비(도비 40억 원, 군비 40억 원)가 투입되며, 대소면 오산리 일원 약 2966㎡ 부지에 지상 2층 3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3월 토목 및 건축 공사에 착수한 데 이어, 6월부터 전기, 소방, 통신 등 설비 공사도 본격화했다. 현재는 건축 기초 토공사 시공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은 154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대소면 중심

상업 지역과 인근 주거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역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다. 유예 조치는 공사 준공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군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인근 주차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군은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설계 방향성과 안전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단계별 공정 점검을 통해 안전 시공과 품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박수동 기자 bsd7012@dailycc.net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간 상생협력 강화

증평군·음성군의회, 교차 기부

“협력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

증평군의회는 2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 확산과 지역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음성군의회와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

이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조윤성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지방재정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증평군의회와 음성군의회 간 교차 기부가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평/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진천군 정덕희 문화복지국장 퇴임

“32년 여정 생겨진 천 토대 되길”

진천군 정덕희 문화복지국장(57·남·사진)이 32년간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정 국장은 1993년, 진천군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로 한결같이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해왔다.

2021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이월면장, 주민복지과장 등을 역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으며 2025년부터는 문화복지국장을 맡아 군 문화·복지 행정의 방향을 이끌어왔다.



그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진짜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촘촘한 서비스 구축,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 추진까지 모두 그의 손길이 닿아 있다.

정덕희 국장은 “지금껏 수많은 주민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웃고 웃었던 여정이 생겨진 천 복지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진천군 디지털 꿈나무 ‘글로벌 IT’ 체험

IT 스카우트 학생, 구글·애플 등 실리콘밸리 기업 방문

스탠퍼드대학교 탐방·KIC 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진천군 디지털 꿈나무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았다.

지역특화 인재 양성 국내 프로그램으로 배출된 ‘IT 스카우트(4기)’ 학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IT 스카우트는 인공지능(AI), 코딩,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수업, 선진지 견학 활동, 캠프 활동 등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해당 방문은 IT 스카우트와 국외 프로그램에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국외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됐으며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연수가 진행됐다.

국외 프로그램은 진천군과 충북도 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학생들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의 일정 동안 구글, 플러그앤플레이, 애플 등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IT 기업을 방문하고, 스탠퍼드대학교 탐

방, KIC 피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글로벌 IT 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은영 군 교육지원팀장은 “이번 과정은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천군과 충북도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만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 양성 국내 프로그램인 ‘IT 스카우트(5기)’를 학교별 일정에 따라 모집 중이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천/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어울리다 그룹, 진천군 방문

취약계층 성금 전달

진천군은 2025년 충북형 가치봄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 중인 ‘어울리다’ 그룹이 군청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어울리다’ 그룹은 진천군 관내 어린이집 5개소 △건영 △두촌 △예랑 △조아 △해피트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성금은 ‘어울리다’ 그룹이 지난 5월 8일 아나바다 행사를 진행하고 모인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아이들이 아나바다 행사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을 기탁해 나눔의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괴산군 발전 위해 헌신과 노력에 감사”

공직자 18명 이·퇴임… “사회에 보탬 되는 삶 이어갈 것”

괴산군은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직자 18명이 이 달을 마지막으로 정든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이·퇴임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인공은 △연기용 행정복지국장 △윤태근 보건소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이나은 건강증진과장 △이재경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전수 괴산읍장 △이진우 갑물면장 △장경수 청안면장 △육윤욱 연풍보건지소팀장 △김준옥 칠성보건지소팀장 △황용해 청천보건지소팀장 △황하숙 정신건강팀장 △이상례 청천면 부면장 △김병섭 청안면 민원팀장 △이삼용 칠성면 부면장 △홍순환 주무관 △이일규 주무관이다.

공직을 떠나는 선배 직원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기 위한 이·퇴임행사가 군청과 각 소속 부서에서 열렸다.

이번에 이·퇴임하는 18명의 공직자들은 가족들을 비롯해 오래도록 함께한 후배 공무원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어준 가족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는 한명의 주민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송인현 군수는 “괴산군 발전을 위해 30여년간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더욱 멋진 앞날이 펼쳐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괴산/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광고문의

042-252-0100

— 지 사 안 내 —

증평·진천 043)838-0168

괴산 043)834-0091

음성 043)873-5004